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손해보험회사, 초과사업비 해소방안 마련

□ 손해보험회사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의 해소방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함.

- 지난해 손해보험회사들의 예정사업비는 3조 1,000억원이었으나 실제사업비는 3조 2,889억원을 나타내어 보험료 상승 압력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초과사업비 해소를 위한 자구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 반대 원칙을 밝힘.
-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카드수수료 인하를 정부에 건의하고, 대형 판매대리점 수수료 인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초과사업비 해소방안 이행계획을 각 사별로 마련해 자율협정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계획임.

□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현재 3.2%인 자동차보험 카드수수료율을 1.5%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함.

- 손해보험회사들은 카드사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카드로 납부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의 평균 3.2%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, 이는 계약자 60% 이상이 카드 수납임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치라고 평가함.
- 자동차보험의 카드수수료율을 1.5%로 낮추는 방안이 실현될 경우 연 1,000억원 이상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.

□ 손해보험회사들은 사업비 절감을 위해 소모성 경비를 줄이는 한편, 대형 대리점에 지나치게 높은 판매수수료가 지급되는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임.

- 현재 설계사에 지급되는 자동차보험의 판매수수료는 보험료의 8% 수준이나 대형 대리점에는 18% 수준의 높은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음.
- 따라서 대형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예정 사업비 내로 축소하고 영업매출과 손해율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임.

(손보업계, 車보험 카드수수료 인하 건의 등, 연합뉴스 외 다수, 6/28)